

# 함께 빛나는 문화공간 '도자문화관' 건립에 역량 집중

### 국립광주박물관, 올해 계획 발표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연구 활성화 '중앙박물관 지역순회전' 추진

아시아 도자문화 교두보가 될 '도자문화관' 건립에 역량 집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과제는 내년 말 도자문화관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1978년 개관한 광주박물관은 광복 후 우리 손으로 건립한 최초 국립박물관이다. 당시 신안선 발견과 해저 발굴 유물 보관 연구 등을 위해 건립됐다.

특히 광주박물관은 신안선 출항 700년인 2023년을 전후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신안선 유물의 가치 등을 조명할 바 있다. 향후 도자문화관이 건립되면 광주박물관은 명실상부한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광주박물관이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자문화관 건립에 따른 역량 집중,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 활성화 등을 내세운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광주 충효동 출토품 공개, '조선의 정자와 도자기전', '중앙박물관 지역순회전' 등도 추진하며 박물관 교육 전시 설명회인 '뮤지엄 토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중점 추진 과제인 도자문화관(지상 2층)은 3개의 전시실(한국도자실, 신안해저문화유산실, 신기술융합콘텐츠 영상실)과 수장고, 보



국립광주박물관은 내년 말 도자문화관이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성욱 학예연구관이 수장고에서 충효동 분청사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존과학실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실에는 신안해저 문화유산 연구 성과가 공개되며, 14세기 아시아 교역 조망이 가능하다.

도자문화관 건립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전남 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전남의 K세라믹 융합클러스터 조성 기반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령 관장은 "도자박물관은 중외공인 특례사업 일환으로 조성 중인 테마별 공원지구와 접하고 있어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박물관 모두가 함께 빛나는 문화공간'인 만큼 지역문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학술대회 및 연구총서 발간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 등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광주 충효동 요지(제141호) 답사, 출토품 공개 등 연계행사도 진행된다.

올해는 선사시대 복합농경유적인 신창동 유적의 문화경관 복원 연구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구 제작, 동·식물유체 분석 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힐링과 문화 향유를 위한 특별전도 펼쳐진다.

조선 호남 문인들과 땀 수 없는 '정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조선의 정자와 도자기' (가제)를 통해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돌아볼 예정이다. 허련의 '완당난화'를 비롯해, 백자 청화산수무늬항아리, 정자 출토 도자기 등 100여 점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지역 순회 특별전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신라-가야 장례에 사용되었던 토기 등을 모티브로 당대 사람들의 내세관, 장사를 살펴본다. 신라-가야 시대 장식 토기 300여 점이 관객을 맞는다.

박물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올해는 14종 109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지역 학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뮤지엄 토크'를 본격 시행한다.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인 '고려청자 몸타주'는 도자기 조각을 만질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올해 1월 재개관한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조물조물 꿈을 빛나는 도자기'를 모티브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 박물관은 전시·교육과 연계한 12종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연간 39회 운영할 계획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대-전남대 트리오' 정연택(왼쪽부터), 안정연, 최준호. <장흥문예회관 제공>

## 캠퍼스 주름잡던 가수들 다시 돌아온다

### 장흥문예회관, 29일 '대학가요제 리턴즈'

대학가요제를 중흥시킨 캠퍼스 주름잡았던 가수들이 추억의 무대로 다시 돌아온다.

장흥문예회관(이하문예회관)은 '대학가요제 리턴즈'를 오는 29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연다. 대학가요제는 2013년까지 36년 동안 청춘문화와 대중음악의 주축이 되어 왔다. 특히 MBC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등으로 데뷔한 가수들이 출출동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프닝 공연은 가수 이대희가 부르는 '호텔 캘리포니아'로 장식한다. 이어 '건아들이' '젊은 미소', '미운 사랑', '잊지는 않겠어요' 등 시대를 풍미했던 곡을 들려준다.

서울대-전남대 트리오(정연택, 안정연, 최준호)는 '젊은 연인들', 'The Boxer'를 비롯해 '저녁 무렵'을 부른다.

휘버스의 이명훈은 '그대로 그렇게 가벼운 친구에게 바칩'과 '내사랑 영아', '얼굴 빨개졌다네'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외에도 서울패밀리(복비), 샌드페블즈의 여병설 등이 출연해 자신만의 목소리로 대학가요제의 감성을 다시 소환한다. 출연진 전체가 부르는 '젊은 그대'도 예정돼 있다.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김경석 주무관은 "대학가요제에서 활약했던 가수들은 부모 세대에 감수성과 추억을 일깨우고, 청년 세대에게는 자유와 복고의 감성을 음악으로 알려줄 것이다"며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따뜻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마다의 기쁨을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3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토우 장식 토기'

## 길운 가득 '대보름, 청룡이 나리소서'

대보름을 맞아 올해 첫 무등풍류 댄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대보름, 청룡이 나리소서'를 정월 대보름날인 24일 오후 1시 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대보름을 맞아 탕화장이 직접 그린 세화를 선물 받고, 통영오광대 공연 등 평소 즐기지 못했던 다양한 공연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오후 1시 서석당에서는 갑진년 세화 시연과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세화는 조선시대에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대궐 안에서 만들어 임금이나 신하에게 내려주던 그림으로, 주로 선동(仙童)이 불로초를 씹어준 모습 등을 그린 작품이다. 진행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송광무 탕화장.

같은 시간 솟을대문 주변에서는 해오름놀이, 참고누, 이리저리, 협동제기 등 민속놀이를 비롯해 한복체험도 할 수 있다. 나주시전래놀이문화연구회 솔레가 생소한 민속놀이를 쉽게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체험 이후에는 환과(유과)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대보름 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보존회가 선보이는 '통영 오광대 놀이'도 있



지난 '무등풍류댄-봄 마중 가세-' 행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의 줄타기 공연.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가면극으로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전통문화관 박희은 팀장은 "전통 풍류의 산실인 전통문화관에서 대보름을 맞아 세화 나눔, 유과

###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 24일 올해 첫 무등풍류 댄 행사

나눔 등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국가 무형유산인 통영오광대놀이는 액운을 막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 시간을 내 행운을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29일 진행

김상연은 동양적 미학에 전착하는 작가다. 판화를 공부하며 동양의 인쇄술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궈왔다. 수인판화, 흑백회화, 조각, 대형 설치 등 스펙트럼이 넓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진행하는 2월 GB작가스튜디오탐방에서는 김상연 작가를 만난다. 29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김 작가 스튜디오. 작가 연구 관련 답문을 확대하기 위해 윤재갑 큐레이터가 심층진행을 맡는다. 김 작가 작품 세계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감상도 진행된다.

김 작가는 전남대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국립중앙미술대학에서 판화와 석사를 전공했다. '한국-프랑스 판화작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단체전과 포스코미술관, 신세계갤러리 개인전 등에 참여했다.

김 작가와 매칭된 윤재갑 큐레이터는 현재 중국 하오야드 뮤지엄 관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를 거쳐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 커미셔너,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역임했다.

대면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 구글 설문지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뷰 영상은 3월 중 (재)광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

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 예정이며 김 작가에 대한 윤재갑 큐레이터의 연구 결과물은 오는 28일부터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표이사는 "이번 김상연 GB작가스튜디오 탐방은 '작업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물음으로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의 작품 세계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김 작가 외에도 올해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